



옛 생활과 새로운 생활

서울 서 선교부장
김 차 봉

말일 성도들은 확실히 예수에 대하여 들었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예수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옛 생활을 따르는 낡은 인간성, 곧 정욕에 속아 썩어져 가는 옛 인간성을 벗어 버리고 마음의 영이 새로와져서 진리에 근거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새 인간성을 입으시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직선 운동으로 시간의 반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내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생활은 새로운 내일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였다 하더라도 내일에는 또다시 실족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말일 성도들은 침례를 받고 새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침례 받은 후 침례 전과 똑같이 변함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잘 것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근거한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아 즉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에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삼가해야 하며 빛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암흑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 있는 빛의 사람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진실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며,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열매 있는 일들을 선택해서 행해야 하며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회복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 안에 거하고 있으며 예언자와 사도들이 인도하는 성령의 집 속에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악한 것들은 결국 거룩한 성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선한 무리와 빛의 자녀들은 신앙이 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 생활에 아직 젖어 있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사랑의 보살핌으로, 때로는 무서운 경교로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깊이 동화될 수 있으며 협동의 개체로 서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훌륭한 것을 잡으려는 목표를 정립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다 연합합니다. 늘 사탄의 유혹을 통해 실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진실하

지역 지도자 메시지

고 성실할 때 이러한 발전된 생활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는 욕망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정직과 순결과 온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나 자신을 고귀하고 존엄한 인격체로 생각해야 하며 이러한 사상 속에서 남의 인격을 또한 그렇게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공격하기에 바쁘고 자기 스스로를 꾸짖는 데 게으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가차가 없으나 자기 자신의 잘못과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태만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인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고귀하고 존엄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존엄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남도 업신여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영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배와 신앙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인 대등 관계로 서로 인격을 존중할 때 훌륭한 서로의 발전과 단체 생활의 협동이 이룩될 수 있습니다.

강변에 가면 자갈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 무수한 자갈들이 본래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각도로 불규칙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홍수에 밀려 내려오면서 저들끼리 부딪치고 마찰되고 해서 그 원형을 모두 상실하고서 이제는 강변의 동일한 성질을 가진 자갈들이 된 것입니다. 둥근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으나 모두 단단하고 반들반들한 돌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가풍의 가정에서 태

어나고 각각 다른 교육 정도와 기질을 갖고 교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일성도란 테두리 안에서, 또한 흐르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사탄의 무리에 끌려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련된 단단한 인격과 훌륭한 덕망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자녀로서 장자의 교회에 속한 자의 상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옛날의 생활을 그대로 계속하지 못하도록 권고하여 사탄의 영역 속에 빠지지 않도록 견져 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한 가능성의 존재요 풍부한 잠재력의 존재입니다. 저마다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감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온을 건설하는 데 참으로 필요한 성도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역군들입니다.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받은 талан트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양심과 성심성의로 수행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투철할 수록 탁월한 인간이요, 책임감이 약하고 회박할 수록 부족한 인간입니다. 얼마만큼 책임 의식이 강하나를 보고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의 우리 선비들은 자기의 중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들을 고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책임이 인간 생활의 생명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시온 건설을 위해 맡은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의 종교요, 개척하는 일꾼의 종교요 전통 위에서 있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기 위해 매일 더욱 맑고 밝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

교회의 현재와 과거를 연결한

“페이에트”

교회 회복 150주년 연차 대회는 미래의 통신 발달에 거보를 내디딘 환편 향수 어린 과거를 되돌아보는 대회였다.

이번 연차 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 대륙만큼 떨어진 두 지점을 인공 위성으로 동시에 연결하여 갖는 특별한 대회였다. 일요일인 4월 6일의 대회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갖는 모임 이외에 교회의 요람이며 초기 교회 역사상 많은 중대 사건이 일어났던 페이에트로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페이에트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인공 위성을 통하여 테버내클의 울겐 파이프의 양쪽에 설치된 17피트의 대형 스크린에 방영되었으며, 전 세계 각국에 방영되었다. 현대의 통신 기술로 말미암아 솔트레이크 시티로부터 페이에트까지 연결되는 텔레비전 방송은 순조롭게 방영되었다.

페이에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김볼 대관장이 피터 휘트머의 복원된 농가를 헌납하는 것이었다. 김볼 대관장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토요일 아침 모임에 참석한 후 그날 밤 뉴욕에 도착하여 이 모임에 참석했다.

복원된 통나무집은 요셉 스미스와 다섯 명의 형제들이 1830년 4월 6일, 화요일에 공식적으로 교회를 조직했던 휘트머의 농가의 원형을 복원한 것이었다. *

새로 부름받은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

새로 조직된 초등협회 회장단이 지난 4월 5일, 교회 회복 150주년 연차 대회의 아침 모임에서 지지받았다. 신임 회장으로 드웬 제이 영 자매, 제 1보좌로 버지니아 비 캐년 자매, 제 2보좌로 마이컬린 피 그래스리 자매가 각각 지지받았다.

전임 회장단은 회장 나오미 엠 섬웨이 자매, 제 1보좌 콜린 비 레몬 자매, 제 2보좌 도로시어 시 머덕 자매였다. *



좌: 드웬 제이 영 자매 중앙: 제 1보좌 버지니아 비 캐년 우: 제 2보좌 마이컬린 피 그래스리

한국 신학 연구원 동문회

1980년도 한국 신학 연구원 동문회 모임이 5월 12일 오후 이따리아노에서 열렸다. 조 규영 동문회장이 주최하고, 서희철 교육 기구 대표가 감리한 이 모임에서는 서울 서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은 김 차봉 교수의 환송 특별 회식도 가졌다.

조 규영 회장, 김 정숙 부회장, 이 풍호 부회장의 업무, 예산, 집행 보고 및 계획 발표 이외에 허 채 동문의 특별 사업 계획이 진지하게 토의되었으며, 100 여명의 동문들은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소식을 서로 나누고 즐거운 추억들을 되새기며 뜻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의 화기에 애한 모임은 김 차봉 교수에게 드리는 기념패 전달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참석하신 모든 동문들은 발전하는 한국 신학 연구원의 앞날과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헤어졌다. *

서울 스테이크 어버이날 행사



지난 5월 10일 서울 스테이크는 제 4와드에서 어버이날 효도 잔치를 베풀었다.

노부모를 모시고 참석한 회원들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 드렸다. 장고춤, 탈춤, 북춤, 거문고 연주, 현대 무용, 옛노래 등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되었고,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나누었다.

참석하신 노부모 중에는 80세가 넘으신 김 용일 형제의 모친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회원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효도 잔치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

“영혼을 구하는 곳-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3월 15일과 16일 전반기 북 스테이크 대회를 제 6와드에서 가졌다.

이번 대회의 감리자는 지역 대표이신 한 인상 장로였다. 많은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과 일요일 총회를 가졌다. 홍 무광 스테이크 부장은 가족 기도의 중요성과 가족의 단합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한 인상 장로는 우리 나라에도 신전이 건립되도록 회원들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70개의 스테이크를 84년 말까지 조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말씀하는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 홍 무광



스테이크 영진의 영결 기도

제 1회 동, 서 신학 연구원 체육 대회

지난 5월 3일 동, 서 신학 연구원 대학 친선 체육 대회가 열렸다. 동 신학 연구원 주최로 서울 선교부 운동장과 4와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7시간 동안 열전을 벌였다. 농구, 정구, 배구, 탁구, 발야구 등 5개 종목의 경기에서 5전 4승 1무의 성적으로 동신학 연구원이 종합 우승을 거두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금판 문자의 사본 발견

재닛트 브리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중앙)이 최근에 마크 호프먼(왼쪽)이 찾아 낸 요셉 스미스의 문서를 살펴보고 있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엔 엘튼 태너 부대관장과 제2보좌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심이사도 정원회의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고든 비 힐클리 장로가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오른쪽에는 호프먼 형제가 발견한 문서가 들어 있던 요셉 스미스가의 성경책이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물문경 금판에서 베껴 낸 수직의 행과 기타 문자는 1828년에 요셉 스미스가 복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문경 금판 문자를 요셉 스미스가 베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이 개인 수집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출처가 틀림없는 것이라면 이 한 장의 종이야말로 현존해 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 된 말일성도의 기록이며 또한 요셉 스미스의 필적이 될 것이다. 금판에서 베껴 쓴 문자는 1828년 2월에 마틴 해리스가 뉴욕시의 찰스 안톤 교수와 사무엘 엘 밋셀 박사에게 가져 가기 위해 만든 것의 일부임이 분명하다.

로간에 있는 유타 주립 대학의 의학부 예과 학생이며, 고문서와 골동품 수집가인 마크 윌리엄 호프먼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구입한 낡은 성경에서 이 서류를 발견했다고 한다. 1668년에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출판된 이 성경은 지난 17세기 때부터 스미스 일가가 소유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요셉 스미스의 문서는 사등분으로 접혀 검정색 접착제로 잠언에 붙여 있었다. 이 사본의 한쪽 면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 쓴 글씨가 실려있으며 "요셉 스미스 이세"가 서명한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문자는 내 손으로 금판에서 복사해서 마틴 해리스에게 주어서 뉴욕시로 가져 가게 했으나 학자들이 번역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사야 29장 11절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것을 저들에게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

동경 신전과 시애틀 신전의 헌납일이 결정됨

대관장단은 동경 신전과 시애틀 신전의 헌납일과 동경 신전장을 발표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회복 150주년이 되는 금년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전 19개와 건설 중인 신전 2개와 계획 중인 신전 7개를 갖게 된다.

동경 신전에서는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전을 공개하며 10월 27일에 헌납하고,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기타 의식을 집행하게 된다. 대관장단은 드웨인 넬슨 앤더슨과 그의 아내 페기 진 휴이쉬 앤더슨이 신전장과 신전 매트론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보좌는 후에 부름을 받을 것이다.

시애틀 신전은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일반에게 공개되며, 11월 17일에 헌납하고,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모임이 반복될 것이다. 시애틀 신전장인 에프 아더 케이와 그의 보좌인 진 엠 콘거와 앤소니 아이 아이어링은 1978년에 부름을 받았다.

동경 신전은 우리 교회의 18번째 신전이 될 것이다. 특별 초대 손님을 위해 9월 15일에 공개 될 예정이며, 회원과 비회원을 위해서는 그 다음 날에 시작해서 10월 1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공개될 것이다.

첫번째 헌납 예배는 10월 27일 오후 3시에 갖게 될 것이다. 신전 추천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모임은 10월 28, 29일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갖게 된다. 이 모임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동경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릴 것이다.



동경 신전장 드웨인 앤 앤더슨 부부

신전 의식 사업은 1978년 4월에 건설 공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반만인 11월 4일에 시작하게 될 것이다.

동경 신전의 새로운 신전장이 된 드웨인 앤 앤더슨 형제는 과거에 북극동 선교 부장을 역임한 분이다. 현재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조교수이자 직업 교육 카운셀러이다. 또한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 제 1스테이크의 축복사이며, 하와이 신전에서 책임자로 있었다. 그는 오아후 스테이크의 교회 대학 제 3와드와 월넛트 크리크 캘리포니아 스테이크의 콩코드 와드의 감독을 역임했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분교에서 7년 동안 외국인 학생 담당 고문 및 카운셀러로 있었으며, 캘리포니아와 유타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한 적도 있다.

앤더슨 자매는 조등협회, 청녀, 주일학교 및 상호부조회의 역원과 교사로 일했으며, 하와이 신전의 안내자로 일했다. 현재는 오렘 고등학교의 영어 시상 프로그램 교사로 있으면서 젊은이들과 여성 그룹의 초청 강사로 일하기도 한다. *